

# 디자인 사고의 공감과정을 기반으로 한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 개념모형 제안

## A Framework of Relationship-design for Ultimate Partnership based on Empathy Approach of Design Thinking

송가형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대학원

Song, Gahyung

Faculty of Design, The Graduate School, SNU

정의철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Jung, Eui- Chul

College of Fine Arts, SNU

• Key words: Shared value, relationship-design for better partnership, participatory design

### 1. 서 론

부족한 일자리, 한정된 자원, 1인 가구의 증가로 생명력을 잃어가는 공동체 문화와 심각해지는 사회계층간 양극화 현상 등은 우리 사회를 점점 살아가기 각박한 곳으로 만든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향으로써 지역 사회에 숨을 불어 넣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월 말, 서울시는 ‘내가 바꾸는 서울: 100일의 실험’ 공모를 통해 6대 리빙랩(living lab) 사회 혁신 프로젝트를 선정하였다.<sup>1)</sup> 프로젝트로 선정된 주제들은 ‘공유주차로 사람 중심 골목 만들기’부터 ‘지역 대안화폐로 능동적 소비활동 및 공동체 경제 활성화’와 같으며, 사회적 난제들을 시민 주도의 생태계 디자인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시도이다. 또한 2012년부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주요 정책사업으로 정하고 마을 중심의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구 및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의 목적은 ‘시민 주도의 자발적’ 참여 디자인의 성공사례 소개가 아니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은 시도들이 지닌 한계점을 지적하고 이들의 한시적 특성의 원인을 알아봄으로써 앞으로도 계속될 참여 디자인 프로젝트가 지속성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사고의 공감과 소통을 기반으로 참여 주체들 간의 가치 공유를 이끌어 내는 동반자관계 디자인의 개념모형을 제안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 2. ‘하향식’ 참여 디자인의 구조적 한계점

우리나라는 근대에 들어와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다. 이로써 주민들의 일상적 삶과 그들의 필요에 의한 관계들의 망으로 채워진 자연발생적 공동체가 성숙할 수 있는 기회를 잃었다(김태근, 2013). 국가는 개발도상국으로서 단기간에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정부 주도적으로 사회적 기업 육성책<sup>2)</sup>을 시행하였고, 이것이 최근 서울혁신파크의 설립<sup>3)</sup>이나 마을공동체 정책 사업과 같은 ‘자발적’ 주민 참여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참여 디자인이란 디자인의 초기 단계부터 디자이너

와 참여자가 모든 결정권을 공유하는 것이다(Bjerknes, Ehn & Kyng, 1987). 따라서 참여 디자인의 접근 방식으로 지역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지역 주체의 실제적 필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금 지원 및 정책상의 이유로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거나 디자이너가 지역 주민들과 피상적인 관계만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본래 의도와는 달리 그 자발적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박주형(2013)은 정부에 의한 하향식 구조의 참여 디자인에 있어서 지역민들의 창의적이고 자기주도적인 면모는 어디까지나 국가가 정해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그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나 ‘민관 파트너십’ 과 같이 용어를 사용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은 용어의 세련됨만 있을 뿐, 그 목적은 마을 통치를 좀 더 정부의 구미에 맞추도록 디자인의 방향을 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그림 1] 참여 디자인에서 주민 참여를 저해하는 원인 4가지(Gaudio, 2016)

01	지역관계자에 권력 위임
02	디자이너-지역관계자 서로 다른 방향성
03	협력과 경쟁 관계의 균형
04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도 저하

가우디오(Gaudio et al., 2016)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빈민촌 공동체 바꾸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주민의 참여를 통한 디자인 도출을 저해하는 4가지 원인을 도출하였다(그림 1). 이 지역은 지역 정부의 도움 없이는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험하고 불가능한 곳이었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은 지역 무정부 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와 파트너십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현장의 문화와 장소적 맥락에 익숙하지 않은 디자이너는 지역관계자에 크게 의존하는 관계에서 그들의 입장에 반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진행하기 어려웠다(그림 1)의 원인 1과 2). 일례로, 디자이너가 주민 참여 워크숍을 통해 도출한 아이디어가 실제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혁신적 대안이였음에도 지역관계자가 진행 방식의 어려움을 이유로 들며 반대의를 표명하면서 그 제안은 묵살되었다. 이 결과 디자이너들은 지역관계자와의 협력 관계에 있기보다 서로를 경쟁관계로 인식하게 되었다(그림 1)의 원인 3). 마지막으로 디자이너들에게는 익숙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의 도구들이 비전문가인 지역 주민들에게 친숙하지 않으니 아이디어 도출과정에 그들은 방관자로 머물 수밖에 없었

1) 리빙랩(Living lab)이란 ‘생활 실험실’로서, 지역민 중심의(context-based user-centered) 개방형-변화 생태계(open-innovation ecosystem)이다(Chesbrough, H.W. (2003)).

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07년 1월 제정; 2007년 7월 시행; 2010년 6월 개정(<http://www.socialenterprise.or.kr/about/history.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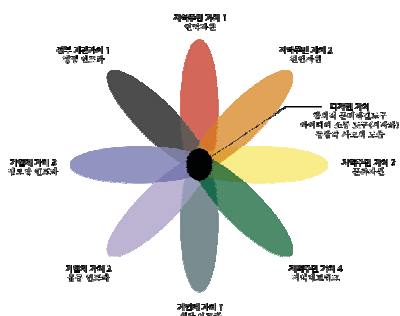
3) 2015년 4월 개소한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으로 민간위탁(2018년까지 사회혁신공간데어) 방식으로 설치 및 운영 중이다(<http://innovationpark.kr>).

다(그림 1)의 원인 4). 이처럼, 아무리 디자인 의도가 훌륭하고 디자이너가 그 기획과정부터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려 하여도, 디자인 방향을 결정하는 것에 있어 정부(지역관계자)에 결정권이 지나치게 위임되거나 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도구가 비전문가인 참여 디자인 주체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 실제로 주체들이 함께 고민해야 문제에 접근조차 하지 못하거나 그들과 깊이 있는 소통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 정부에 의한 한시적인 이벤트로 그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 3.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 개념모형 제안

어느 지역 사회나 다양한 참여자들이 존재하고 이들은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다. 본고는 디자인 사고의 공감대 형성(empathizing)과 참여디자인(co-design)의 공유(sharing) 과정을 그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다양한 가치들을 의미 있는 결과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이렇게 도출한 관계 디자인 모형도에서 참여자들은 자기 가치를 자각하고, 그것을 공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주체들이 서로를 배척하는 관계를 넘어 공감과 가치공유를 통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여 시너지를 발산하게 되는 과정이 바로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 (이하: 관계 디자인)의 핵심 개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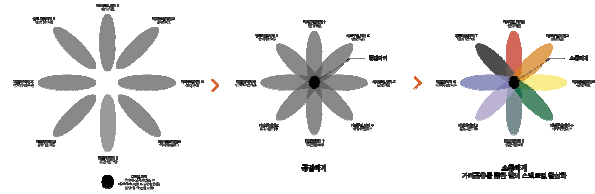
[그림 2-1]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 개념모형



[그림 2-1]는 관계 디자인 개념 모형도이다. 이것은 꽃을 추상화한 모형으로서 다채로운 이파리는 지역 사회의 참여 주체인 지역주민과 기업체, 정부 기관을 의미하고, 검은 꽃술은 이들을 하나의 핵심 가치로 통합하는 디자인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 모형에서 핵심은 검은 꽃술(디자인)이다. 이파리는 디자이너가 그들의 핵심가치를 관통하여 엮어야지만 비로소 꽃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계 디자인의 첫 걸음은 디자인 사고 과정과 마찬가지로 대상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디자이너는 ‘공감하기’를 통해 지역 주체의 배경과 현상의 맥락을 이해하고 그와 일심동체를 이룰 수 있다. 이 과정은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공감을 통해 흩어져 있던 이파리(관계자)가 모여 비로소 존재의미를 가지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그림 2-2의 가운데 모형).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서 디자이너는 자신의 가치인 창의적 문제해결 도구와 시각화 도구를 활용하여 주체간의 소통을 도모한다. 앞의 가우디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소통하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도구를 활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림

2-2]는 공감대 형성과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과정을 표현하였다. 즉, 단색이었던 이파리가 소통의 과정을 통해 빛이 완연한 색으로 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관계 디자인 개념의 진정한 생명력은 이러한 참여자간의 소통의 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때이다.

[그림 2-2] 공감하기와 소통하기



###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디자인 사고의 공감의 과정을 기반으로 가치공유 동반자관계 디자인이라는 개념 모형을 제안하였다. 역사적으로 정부 주도의 지역 사회 디자인이 자행되었으나 이를 참여 디자인의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현실의 구조적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모형은 지역민들의 참여를 원동력으로 하는 지역 사회 디자인에 있어서 공감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동시에 서로 다른 주체들의 가치 공유 과정에서 디자인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추후 실제적인 사례연구를 통해서 그 사례의 주체들이 이 개념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조사하려한다. 또한 동반자관계 디자인이 사회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하는 과정으로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 볼 것이다.

### 참고문헌

- Chesbrough, H.W. (2003), Open Innovation: The New Imperative for Creating and Profiting from Technology, Boston: Harvard Business Press.
- Fuad-Luke, A.(2013, March 23), co-design loop 2.0. Retrived October 10, 2016, from <https://window874.wordpress.com/2013/03/25/co-design-loop-2-0/>
- Gaudio, C., Franzato, C. & Oliveira, A.J.(2016), 『Sharing Design Agency with Local Partners in Participatory Design』, International Journal of Design Vol.10(1) Lunciman, David (February, 2012)
- Manzini, Ezio. (2015). 『Design, When Everybody Designs: An Introduction to Design for Social Innovation』, The MIT Press
- Pallot, M. (2009), Engaging Users into Research and Innovation: The Living Lab Approach as User-centered Open Innovation Eco-system, Webergence Blog.
- 김태근 (2013), 사회적 기업 정착을 위한 한국 사회의 성찰-베버와 하버마스의 합리성 이론을 중심으로, 인문연구, 제 67호, 2013.4, p.420
- 박주형 (2013), 도구화 되는 ‘공동체’: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공간과 사회, 2013, Vol. 23(1), p.18-34